

이성희 우석대 교수, 스승의 날 교육부장관 표창

우석대학교 이성희(이동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제44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이 교수는 1993년 3월부터 우석대학교에 재직하며 30년 넘게 아동·가족복지 분야 인재 양성과 연구에 매진해 왔다. 지금까지 200명 이상의 석·박사 대학원생을 지도하고 학회 논문 심사를 맡는 등 학문 후속 세대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가해학생을 위한 교사용 지도서 개발 연구'와 '정신건강증진 콘텐츠 개발 보고서' 등 다양한 수탁 연구 프로젝트를 이끌었으며, 국내 주요 학술지에 32편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밖에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13·14대 회장을 역임하며 학회 발전과 학문적 교류 활성화에 힘써 왔다. 또한 한국가족관계학회와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한국현실치료학회 등 주요 학술단체에서 상임이사 및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며 학술 연구의 질적 향상에 기여했다.

이성희 교수는 "교육은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과의 진심 어린 소통과 신뢰 속에서 완성된다"며 "이번 수상은 지금까지 함께한 학생들과 동료 교수님들 덕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아동과 가족 복지 분야에서 실제 현장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와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정은성 기자



“건설경기 부양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건협 전북, 제10회 회원의 날 행사 개최... 이남호 전북연구원 원장 강연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는 지난 14일 전주 상그린라 C.C에서 회원들의 사기 진작과 결속을 다지는 '제10회 회원의 날' 행사를 회원 대표이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회원 상호 간 화합을 위한 친선행사와 벤처정신, 알래스카와 수어드폴리(Seward's folly)를 주제로 지역발전을 위한 혁신과 도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의 강연이 있었다.

이남호 원장은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구매한 사례를 통해 도전 정신과 모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소재철 회장은 "건설시장 정상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도내에 시행중인 대형 건설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한층 더 강도 있게 추진하여 회원사 일감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율러, "회원 간의 화합과 급변하는 법과 제도에 대한 교육과 강연 등을 수시로 제공해 임직원 역량 강화를 통한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건설시장 정상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도내에 시행중인 대형 건설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한층 더 강도 있게 추진하여 회원사 일감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권희성 기자



남원농협, 어버이날 맞아 배식 봉사활동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과 남원농협 고향주부모임은 남원시 동부노인복지관에서 취약계층 및 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배식 및 남원시 어버이날 기념행사 도우미 등의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남원시는 동부노인복지관에서 복지관을 찾은 어르신들에게 케이크와 선물, 공연, 점심 특식 및 다과를 제공하는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남원농협과 남원농협 고향주부모임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박기열 조합장은 "고향주부모임의 운영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도통동 등, 송동면 복숭아 재배 농가 일손돕기

남원시 도통동(동장 소선자)과 시 행정지원과(과장 김은영) 직원 20여 명은 지난 5월 13일, 본격적인 과수 작업 시기를 맞아 송동면 안계마을 복숭아 재배 농가를 찾아 열매 숙기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일손 돕기는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현실에 공감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실천적 노력의 하나로 기획되었으며, 봉사에 나선 직원들은 농가와 작업 요령을 익히면서 체계적으로 적절한 열매를 숙여내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한 직원은 "짧은 시간이지만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농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전하였으며, 일손 돕기 관계자는 "앞으로도 행정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 활동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교육가족과, 포도 농가 일손 돕기 진행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교육가족과 직원 15명이 15일, 영농철을 맞아 김산동 용꽃마을의 포도 농가를 방문해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농촌인구 감소와 농촌 인력 고령화로 일손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직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포도 순 제거 및 주변 환경 정리 등 다양한 농작업에 힘을 보태며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일손 지원을 받은 농가 관계자는 "영농철마다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교육가족과 직원들이 시간을 내어 힘을 보태주니 정말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효연 교육가족과장은 "이번 활동은 단순한 일손 돕기를 넘어, 농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상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은행, 2025년 JB 은퇴·연금 세미나 개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고객들의 안정적인 은퇴 설계 및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한 2025년 JB은퇴·연금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전북은행 본점 3층 대강당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세미나는 퇴직한 다음 날 궁금한 9가지 주제를 미래에셋투자증권센터 김동엽 상무가 강연자로 나서 △연금 수령 시기와 방식 △퇴직소득 세금 처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연계 △노후 자산 배분 전략 △은퇴 이후 삶의 태도 변화 등 퇴직 후 많은 이들이 실제로 궁금해 하는 핵심 질문들을 짚어주며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고객들은 생생한 사례와 통계자료를 통해 자신의 은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막연했던 은퇴 이후 삶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계기가 됐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전북은행 PB센터 관계자는 "고객의 은퇴 이후 삶까지 함께 고민하고 준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은퇴연금, 자산관리 등 다양한 주제의 금융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나간며, 향후 고객의 생애주기별 자산관리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남원시, 10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장수축하물품 지원

남원시는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10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50만원 상당의 장수축하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금년에는 100세 어르신 장수 축하를 위해 이불세트, 의료기기, 공기청정기 등 건강생활용품 17종을 어르신들의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물품으로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봄철 꽃가루, 미세먼지 등 알레르기 질환 예방을 위해 지원 품목에 공기청정기를 추가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남원시의 올해 100세를 맞이한 어르신은 총 17명으로, 5월 현재까지 지원을 받으신 어르신은 10명이며, 축하 물품은 해당 지역의 읍면동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직접 방문 전달하고 있어 높은 만족도와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 모 어르신은, 이불세트와 여객 안마기를 선물로 받으시며 "오래 살다 보니 이런 값진 선물도 받게 되어 더없이 기쁘다"라며 행복해했다.

한편 통합돌봄과 권혜정 과장은 어르신의 삶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산동면, 찾아가는 경로당 화재대피 교육

남원시 산동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4일부터 초고령 사회에 따른 어르신들의 화재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경로당 화재대피 교육을 실시하였다.

산동면은 지리적 특성상 산과 인접해 있는 경로당이 많고 특히, 최근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로 인해 작은 불씨에도 큰 화재로 번지기 쉬운 특징이 있으며, 이번 교육을 통해 화재 발생 시 119신고 방법, 소화기 사용법, 대피 경로 확인 등 어르신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적절한 대처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교육을 진행하였다.

안길재 산동면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경로당 화재대피 교육을 통해 안전 의식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산악사고 예방 등 위한 현장 간담회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15일, 지리산 삼도봉 일원에서 산악사고 예방과 산불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를 비롯해 구례소방서(서장 김석운), 함양소방서(서장 손대협),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전남사무소 등이 함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노고단 대피소와 임결령 쉼터, 삼도봉 일원을 직접 등산하며 주요 등산로의 접근성과 위험 요소를 공동 점검하는 등 단순한 회의가 아닌 현장을 함께 걷고 확인하며 문제를 공유하는 실질적 간담회로 운영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참여기관들은 각 지역의 지형과 구조 여건을 고려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으며, 재난 대응 물자 점검과 산불 발생 시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정읍경찰서 현장방문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이 15일 정읍경찰서(서장 박상훈)를 방문해 치안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철문 청장은 평소 치안현장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직원들과 평소 경찰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는 협력단체 유공자들을 선정, 표창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또한 직원들과 차를 마시며 격려하고 생동감 있는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그 밖에도 가을철 방문객이 많은 내장산 일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과 CCTV 관제센터를 방문해 안전한 정읍을 위해 노력하는 관제센터 직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김철문 청장은 "현장 최일선에서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정읍경찰서 직원들과 만나 나 또한 기운을 받는 시간이었다"며 "본인의 업무에 충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끼리 소통하고 화합하는 분위기의 정읍경찰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비전대, 학생주도 제48회 체육축제 개최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15~16일 양일간 학생과 교직원인 함께 어우러지는 제48회 비전체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전은 제49대 '정진' 총학생회 주관으로 축구, 농구, 줄다리기, 계주 등 총 11개 종목의 체육경기가 열린다.

또한 '인생네컷', '근손실 방지위원회' 등 다채로운 미니 게임 부스도 운영된다.

특히 개회식에서는 태권도체육학과 태권도사범단의 화려한 퍼포먼스와 함께 학생·교직원이 함께한 '종이비행기 날리기' 이벤트가 펼쳐져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임서현 총학생회장은 "집행부 전원이 오랜 시간 열심히 준비해 온 비전체전에 많은 학생들과 교직원분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며 "학과 수업, 자격증 준비, 취업 걱정 등으로 지친 마음을 잠시나마 내려놓고 모두가 즐거운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전했다.

우병훈 총장은 격려사를 통해 "푸르른 5월의 캠퍼스에서 열리는 이번 비전체전은 학생들의 활기찬 참여로 캠퍼스에 생기를 더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는 자리로, 모든 참가자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체전을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기두 기자



부안군 사회복지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통합사례회의

부안군 사회복지과 희망나눔팀에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위기기구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사례회의를 지난 14일 번산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부안종합사회복지관, 번산면 지역사회협의회, 부안의연회, 한결전기 등 많은 기관이 참석해 대상자의 생활환경에 대한 안전 확보가 시급함을 통합사례관리사의 설명을 통해 중점적으로 해결 방안 논의가 이뤄졌다는 것.

특히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대상자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청소와 정리정돈, 벽지와 장판 교체 작업을 진행한다.

희망나눔팀은 통합사례관리사의 3명의 활동으로 어려운 상황을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거나 방법을 알지 못하는 주민들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듣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안숙 사회복지과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부안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통합사례관리사를 중심으로 민간단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부안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